

회/원/사/탐/방

- 대표이사 : 이현도
- 설립연도 : 1996년
- 본 사 : 광주시 북구 월출동 970-40
- 주생산물 : 인체감지센서스위치, LED조명, Home Auto System, 절전형 전자안정기, 초절전형 슬립기구, 경관조명
- 전화번호 : 062)573-8585
- 팩 스 : 062)973-7878

DAEBANG
PHOSTECH

대방포스텍(주)

<http://www.onoff21.co.kr>

끊임없는 연구개발 통해 세계적인 조명업체로 성장 기대

조명기술로 국내는 물론 첫 세계 진출도 꿈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조명산업에 있어서도 웰빙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명의 연출기능 및 에너지 절감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방포스텍(대표 이현도 www.onoff21.co.kr)

은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인 설계로서 인체유무를 판단하여 필요시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인체감지센서스위치, LED 조명, Home Auto System, 절전형 전자안정기, 초절전형 슬립기구, 경관조명 등 조명 각 분야에 걸쳐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대방은 새해에는 다른 업체가 넘볼 수 없는 조명기술로 국내는 물론 첫 세계진출도 꿈꾸고 있다.

대방은 사실 광주 전남지역

에서는 이제 라이벌이 없을 만큼 탄탄하게 기반을 잡은 조명기구 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온오프'(on-off)라는 자체브랜드로 이 지역 신규 아파트 조명기구의 90% 이상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토대가 굳건해 극심한 불황에도 작년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50명이 종사하는 10년차 지방 중소제조업체로서, 더욱이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태에서는 눈부신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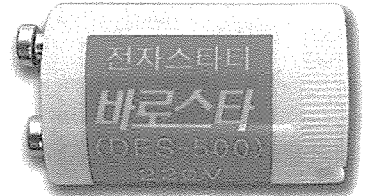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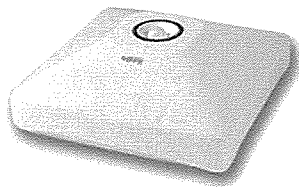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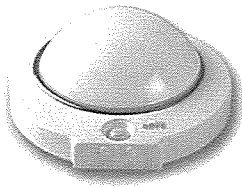
새해 주문량도 벌써 60억원어치를 넘어섰고 올 연말까지 300억원 이상을 올려 작년 매출의 2배를 넘긴다는 포부를 회사는 가지고 있다.

「온오프」라는 고유 브랜드 개발

회사가 밝힌 포부의 근거는 기술력. 이 회사가 1996년 자체 개발한 '절전형 형광센서등'은 지금까지 효자상품.

전등에 센서를 장착해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절약정신'과 맞물려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스람 등 세계적인 조명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0년 `온오프'라는 고유 브랜드도 개발했다.

여기에 중소제조업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전체 직원 가운데 30%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 데다 자체 기술개발 부설연구소까지 두고 있다.

기술력이 취약한 부분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조선대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신기술개발에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다.

이현도 사장은 "우리같은 소규모 회사가 세계와 겨루기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다"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대방은 인체공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악취 제거와 항균효과가 있어 식당과 병원 등에서 큰 호응을 얻는 등기구들 비롯해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건강 램프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올해 최대목표인 수도권과 해외시장 공략은 벌써부터 과란불이 들어온 상태다. 미국과 유럽진출에 필수적인 UL마크와 CE마크는 중소기업체의 지원 아래 이미 받아 놓아 미국 바이어들의 상품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대방이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

몇년 안에 형광등과 백열등을 모두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LED조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를 이용한 식탁등과 통로등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조명등기구 시장의 특성상 그동안 대기업이 투자를 꺼렸고, 그 바람에 조명기구 기술의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져 있으나 향후 5년 안에 세계적인 조명기구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